

성탄절 메시지



2012년 성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55,000교회와 한기총 75개 회원 교단과 단체 여러분 그리고 1,200만 성도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이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시고, 모든 이의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핏빛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불화와 반목이 가득한 오늘의 현실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섬김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세가 된다면, 사회는 한층 더 밝아질 것입니다.

2012년 남은 날 동안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 봅시다. 그래서 모두가 화합의 밑거름이 되어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겨울은 어느 해 겨울보다도 몹시 춥다고 합니다. 서울역에 나가보면 노숙자들이 있고, 각 도시에도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루속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냅니다. 경제가 어려운 탓으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넉넉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것을 떼어서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도우려고 할 때 한국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저 복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무슨 연유로 미사일을 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쏘아서 어찌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얼어붙은 복녘 땅이 녹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19일에 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

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계획에 따라 나라의 안녕과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지도자, 어려운 세계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자, 내세운 공약을 지키며 실현하는 신뢰성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일어섭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내일을 놓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앞다투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신 이 기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개인과 가정, 나라와 세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분열과 갈등의 한국교회를 치유할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제시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1000여명의 목회자들 참석 뜨거운 열기 고조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

12월 1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 소재 새에덴교회 프라미스홀에서 10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가 열렸다. 생명나무 목회는 소강석 목사가 개척 초기 때부터 자신의 심장처럼 여기며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였던 실용적인 목회철학이며 현장방법론이다. 소 목사는 맨발, 맨손, 맨몸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3만 5천여 명의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 3세대의 대표적 개척 목회자이다.

그가 이룬 부흥의 속도와 성과도 괄목할 만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답임하고 있는 새에덴교회가 단 한 번도 갈등과 분열, 파벌 싸움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의 큰 성전 건축 과정을 거치면서도 단 한 번도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지 않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 건축과 부흥 성장에 헌신했다.

그런데 그 부흥과 연합의 한 중심에 생명나무 신앙이 허브가 되고 원동력이 되었다. 이번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는 탁상공론의 신학 이론이나 목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 밀착된 실용적인 목회 패러다임을 소개하여 목회자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직접 강의를 진행한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는 지금 인간 중심의 선악과적 마인드가 교회 안에 침투하면서 온갖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몸살을 앓

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생명나무 목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 선악과적 신앙 마인드와 시스템은 제거하고 성도들을 생명나무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생명나무 목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요 대안"임을 강조했다. 특별히 이룬 강의와 더불어 소강석 목사가 직접 목회 현장 경험을 통하여 느꼈던 생명나무 목회의 진수와 부흥 비결을 흥미롭게 강의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생명나무 목회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목회 패러다임이며 특별히 소강석 목사 또한 개척에서부터 시작하여 목회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공감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

제23회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



할렐루야!

태평양 한 가운데 풍랑을 만난 난파선 같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운행을 하여 항구에 닿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2012년은 한국교회를 영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한기총 75개 회원교단 총회장님, 대한민국 1,200만 성도 여러분!

유난히도 추워질 올 겨울, 경제 한파로 영육간에 얼어붙은 한국 강산과 저 복녘 동토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눈물과 수고로 한국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영적 지도자들을 모시고 한 해를 결산하고 대망의 2013년을 준비코자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자신은 폐결핵, 수전병으로 남모르게 눈물 흘리면서도 인류 평화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지구를 115바퀴나 돌면서 수 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시대 이후 가장 훌륭한 영적 지도자이신 조용기 목사님과 월남하여 이산가족 복음전파를 위해 전신을 기울이고 한기총을 설립하신 영적 지도자 (고)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그동안 한국교회를 위해 목회와 부흥운동을 일으킨 자랑스런 지도자들에게 1,200만 성도의 이름으로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밤 우리를 기억에 영원히 남을 '제23회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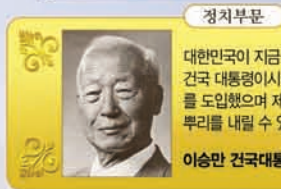
일시 : 2012년 12월 14일(금) 오후 5시 30분

장소 :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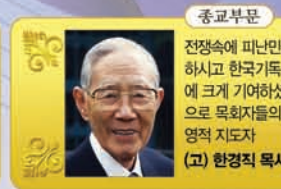
주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보내드린 초청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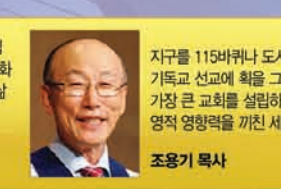
한국기독교에 혁혁한 공을 세운 세계적 지도자賞



이승만 건국대통령



(고)한경직 목사



조용기 목사

예배순서자



이만식 목사 (한기총 총회장)



지 덕 목사 (한기총 총회장)



조경대 목사 (한기총 명예회장)



정학재 목사 (매장개척 총회장)



정준모 목사 (매장합동 총회장)



하태초 장로 (한기총 공동회장 준비위원장)



백혜자 장로 (한기총 공동회장)

한국기독교 자랑스런 지도자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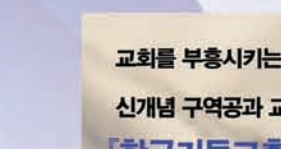
(고)이만식 목사 (한기총 명예회장)



조경대 목사 (한기총 명예회장)



정학재 목사 (매장개척 총회장)



하태초 장로 (한기총 공동회장 준비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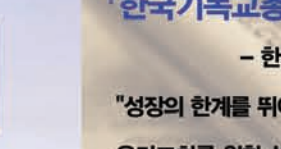
지 덕 목사 (한기총 총회장)



조경대 목사 (한기총 명예회장)



정학재 목사 (매장개척 총회장)



하태초 장로 (한기총 공동회장 준비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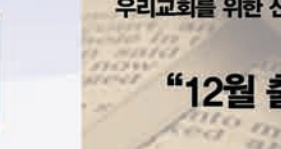
정준모 목사 (매장합동 총회장)



백혜자 장로 (한기총 공동회장)



하태초 장로 (한기총 공동회장 준비위원장)



백혜자 장로 (한기총 공동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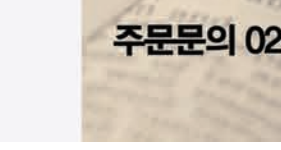
(고)이만식 목사 (한기총 명예회장)



조경대 목사 (한기총 명예회장)



정학재 목사 (매장개척 총회장)



하태초 장로 (한기총 공동회장 준비위원장)

교회를 부흥시키는

신개념 구역공과 교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구역공과」

- 한기총 신학위원회 펴냄 -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교회를 위한 신개념 구역공과 교재!"

"12월 출시 예정"

주문문의 02) 741-2782~5

(정가 : 5,000원)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제 17회 정기총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이하-한기협)는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부터 1996년 1월 23일 허가받아 제17차 정기총회를 2012년 11월 26일 오전 11시에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개최했다.

본 협의회는 I.C.C에 가입하여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보수신앙을 지켜왔다.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그동안 협의의 산하 가입교단들에게 W.C.C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침투를 차단하고 사이비 이단을 막는 등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만 살아가는 철저한 칼빈주의를 주장하며 가입된 27개 교단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날 총회에 앞서 1부 예배는 예장(예합)총회 총회장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예장(부흥)총회 총회장 김권현 목사의 기도와, 예장21C(성령)총회 총회장 강매환 목사가 창12:1-3절을 봉독하고, 예장(개혁)총회 총회장 박형렬 목사가 "복된 총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기독교가 점점 퇴보되고 자유주의가 물결을 이루고 있는 이때 W.C.C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침투를 막고 끝까지 보수주의자로서 손색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협의회가 되고, 복된 만남의 축복 속에 살아가자고 다짐했다.



이어 본문에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할 것이라는 것은 크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면서 본문에 결정적인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는 말씀을 전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장(정통)연합총회 임훈정 목사가 기도하고 사)한기협 발전을 위하여 예장(기도)총회 총회

장 김성한 목사가 기도한 후 460장을 합창하고 이사장 양정섭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 바로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2부 회무에서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예장(중앙개혁)총회장 박길순 목사가 기도를, 예장(개혁)총회 총회장 강희준 목사의 회원 점명으로 개회선언과, 절차보고, 전 회의록 채택, 이사장 업무보고, 예장(개혁)총회 총회장 강희준 목사의 사업보고, 감사 김영의 목사의 감사보고, 예장(합동부흥)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의

재무보고가 있는 후 유인물대로 받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양정섭 목사, △이사 김권현 목사, 노종관 목사, 정서영 목사, 박흥규 목사, 강희준 목사, 임정태 목사, 양성은 목사, 양정식 목사, 김인호 목사, 이영춘 목사, 김연숙 목사, 서경숙 목사, 이대용 목사, △감사 조복동 목사, 김영의 목사 등이 유임 되었다.

이러진 신안건 토의에서 2013년도에는 대표회장을 세워 대표회장 체제로 법인을 이끌어 가자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방침을 세우고, 한편 신년도 사업안과 세입세출 안을 만장일치 통과시키며 모든 안건과 세미나 등은 이사회에 위임하고 신년하례 예배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사단법인 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총회 김권현 목사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로 3개 단체가, 6.25행사는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로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주관으로, 8.15 광복절 연합예배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주관으로 3개 단체가 연합하여 모든 행사를 하기로 하고 이사장 양정섭 목사가 성경 고린도전서 4:1-2을 낭독한 후 주기도문으로 마쳤다.



WCC 총회 저지와 반대운동에 앞장설 것 강력 시사

(사)예장연 제14회 임원 취임감사예배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이하 예장연)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 홀에서 이사장, 총재, 대표회장, 임원, 총회장, 기관장, 총무,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총재 장성화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대표회장 조성훈 목사는 "생명 있는 목회자"제하의 설교를 했고, 바른 지도자 선출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지도자와 경제부흥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예장연 NGMD와 발전을 위하여 각각 고문 선우호 목사와 부총재 김주규 목사, 부총재 이영수 목사, 실무총재 민승국 목사가 특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명예총재 김인식 목사의 인사, 대표고문 김광복 목사와 법률고문 이상형 사관의 격려사, 고문 정영진 목사와 상임총재 이종택 목사의 축사 후에 실무총재 강재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취임식이 거행됐다. 이날 이사장 조성훈 목사는 "한기총과 상호 협력하여 종교적인 행사와 국가적인 행사를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2013년 WCC 총회와 관련해서 전적인 저지와 반대운동에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총재 장성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맡은 일에 총력을 다 하여 진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든다는 취지로 지난 2001년 설립됐다.

<이사회> 이사장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원로),상임이사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 이사 김성곤 목사(풍성한교회), 김운성 목사(땅끝교회), 박성규 목사(부전교회), 박정근 목사(영안침례교회), 박흥석 목사(사상교회), 배광호 목사(남천교회), 안용은 목사(온천교회), 이선우 목사(남성교회), 조영호 목사(소정교회), 허원구 목사(산성교회), 사무총장 유연수 목사(수영교회)

원구 목사(산성교회), 안신이 장로(소정교회), 이재용 장로(부산제일감리교회), 하선규 권사(부전교회), 감사 박성호 목사(푸른초장교회), 이선복 집사(부전교회)

<집행위원회>본부장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 수석부본부장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부본부장 박정근 목사(영안침례교회), 허원구 목사(산성교회) 사무총장 유연수 목사(수영교회)

선명숙 목사 천안 천양교회 설립예배 드려

주님의 뜻을 따라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를 개척

지난 1일(토) 오전 11시 충남 천안 신부동에 소재한 천안 천양교회(선명숙 목사, 천안천양울동신학원장)가 설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최만준 목사(천안 서머나교회)의 예배 인도로, 담임 선명숙 목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며, 사람들의 필요에 봉사하는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공동체가 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결의 한다"며 결의문을 낭독

했다.

이어 천안 천양울동신학원 학생들의 찬양을들, 나순철 목사(남천안순복음교회)의 설교, 최원길 목사(천안시 기독교 동남구 연합회)의 축사, 박상돈 전 국회의원과 이재갑 목사(세주부흥 총재)의 격려사, 담임 선명숙 목사의 인사와 설립예배를 세운 강미숙 전도사, 조일호 집사, 현종근 집사, 유영미 집사에게 감사패 전달한 후 나순철 목사의 축도로 설립예배를 마쳤다.

kdp0920@naver.com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

부산성시화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이사장 정필도 목사·본부장 최홍준 목사 등 선임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에 정필도 목사, 본부장에 최홍준 목사, 수석부본부장 이규현 목사, 사무총장 유연수 목사가 각각 선임됐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는 12월 5일 수영로교회 교육센터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가지고 이같이 결의했다.

또한 법인등록을 위한 정관개정과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날 총회에 앞서

예배말씀을 전한 정필도 이사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부흥의 불을 붙이는 성시화본부가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성시화운동은 민족복음화운동이자 총체적 도시선교운동으로 부산성시화운동본부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산을 거룩하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번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장기환목사 사장: 소조우목사 발행인: 장기남목사

전국 21개 지사 / 해외 25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02호
▶E-mail : jtntv@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축 성탄과 새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HYANGGIROUN CHURCH



표어: 이 전의 더 큰 영광을 보리라(막2:7)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섬기는 분들

전임전도사 : 이귀선(사문) 전도사 : 험시바
선교사 : 전승주, 손호재(태국차임마이)
장로 : 최문호, 유봉철
안수집사 : 손경현, 배하성, 정대봉
성가대장 : 정대봉
성가지휘 : 이용경
피아노 : 배민지 신디 : 김인영
드럼 : 유혜란 김효정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2부 찬양예배 오후 1:30
사망 애잔 교제시간
수요기도예배 오후 7:30
영락원예배 오전 9:00
목요치유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예배 오전 09:30
청년1,2팀예배 오전 09:30
주일학교예배 오전 09:30
새벽기도회 월~목
1일월삭 예배 오전 05:00
17기 제자교육 월화금요일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 향기로운빌딩 9층
☎ 032)814-7720, 팩스 032)714-3131, 010)4274-3330

축 성탄과 새해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사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 사 : 김정예,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발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 덕 교 회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e-mail:lov153@naver.com

축 성탄과 새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홍향표 목사
(한경총 총무)

사랑의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152-861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 02)2625-0982

축 성탄과 새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허식 목사
(한경총 총회장)

과천영락교회

주일예배안내

오전 11시 1부, 오후 2시 2부

426-1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축 성탄과 새해

표어 :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담임목사 신용주

기독교하나님의성회(여의도)
순복음한밀교회

구분	내 용	시 간
주일예배	찬양	오전 11시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주일 오전 9시
	중고등부	주일 오후 2시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시30분	
금요강아지기도회	월 8:30~10:30	
일대일 양육	평일 월 주일	
양육과 훈련	제자 훈련	주일 오후 3시
소그룹모임	최초	월요일 2시
	월 10시	매주 목요일 새벽 5시
	아동부 새 소그룹	수요일 오후 4시/금요일 오후 4시

전화 : 031-577-3004 010-7491-3035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43-1
홈페이지 : www.hanmil.org

축 성탄과 새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효은 목사
(한경총 감사)

화정충현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7시

412-84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91
☎ 031)965-7682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고회 맞아



白鶴 홍재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경서교회)는 2012년 12월 11일(화)밤 6시 서울시 중구 장충동 소재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古稀 및 출판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白鶴 홍재철 목사 고회 및 출판감사에



배에 이강평 목사(그교협세계총회장의 인도로 황덕광 목사(예장합동보수파원측 증경총회장)기도를, 도용호 목사(예장호헌B총무)가 성경 창32:1~12절을 봉독하고, 경서교회 장로회의 축가가 있었으며, 김자연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는 "아름다운

나눔"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축사에는 엄신행 목사(예장개혁총연 증경총회장), 김용도 목사(기침 증경총회장), 이승철 목사(예장개혁총회 증경총회장), 정준모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격려사는 이만신 목사(기침 증경총회장),

지덕 목사(기침 증경총회장), 조경대 목사(예장개혁 증경총회장)이다.

또한 김성광 목사(기하성(순복음)증경총회장)의 설교집서평이 있었으며, 홍성의 목사(경서교회 담임)의 작 축시를 김도현 장로가 낭독한 후 白鶴 홍재철 목사의 인사 말씀과 최명우 목사(한기총 총무)의 광고에 이어 정인도 목사(기침 증경총회장)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에서 배인관 장로(경서교회 수석장로)사회로 축하 공연 및 만찬이 시작되고, 白鶴 홍재철 목사 부부의 케익컷팅, 가족 및 경서교회 장로부부의 인사, 당회장 홍 목사 부부가 내빈을 향한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하태초 장로(평행 증경총회장)의 식사기도, 윤희기 목사(예장개혁(예음)총회장), 경서교회 권사회 등에 마련한 축하공연이 있었다.

권태진 목사 "분열된 장로교회 연합과 일치 다짐"

군포제일교회서 대표회장 · 상임회장 취임감사예배 드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한장총)신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한국교회 연합의 숙원인 연합과 일치, 아울러 이웃을 섬기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짐하며 소감을 피력했다.

"한국교회 하나 되는 운동 펼쳐갈 것" 한장총은 11일 오전 11시 경기도 군포제일교회에서 신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의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권 목사는 "분열된 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웃을 위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을 밝혔다. 상임회장 유만석 목사는 "미려하나마 한국교회가 대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설교에 나선 김삼환 목사(명성교회)는 "지도자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장로교의 연합이 한국교회의 연합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연합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교가 되길 바란다"

고 권면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한장총 직전 대표회장인 윤희구 목사, 임석영 목사(합신 증경총회장), 류태영 박사(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등 교계 인사들도 참석, 한장총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대표회장에 취임한 권태진 목사는 인터뷰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하나 되는 운동이다. 교회의 본질과 연합의 정신을 되살려서 화합을 이뤄나갈 것이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교계 전반의 예로사항에 귀 기울여서 대사회적으로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한교단 다 체제는 옛날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였던 옛날로 돌아가 첫사랑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모두들 하나가 되겠다는 소망을 품고 있기에 잘 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 한기총과 한교연이 분열을 극복하고 한국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장총은 더욱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기보협 2012 교단지도자 송년회 열어

썩어서 뭉그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한기보협이 될 것을 다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법성 목사·작은사진)는 2012 각 교단지도자 송년회를 지난 12월 3일(월) 오전 12시 서울시 강

서구 방화동 김포공회 국제선청사 3층 더스카이온 뷔페에서 각 교단장이 모인 가운데 가졌다.

이날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의 인도로 송년회 예배가 진행되어 임준재 목사(예장 화단 총회장)가 기도를, 박장익 목사의 특송이 있는 후 지왕철 목사(상임고문)는 골로새서 2:8절로 '참된 복음의 파수꾼'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한 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협의회와 가입단체 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했다. (지왕철 목사 설교는 www.jntv.kr) 설교를 마무리

이어 대표회장 이법성 목사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보수교단협의회를 사랑하고, 기도와 염려로서 물신양면으로 도와 주었기에 지금까지 잘 지내왔으며 감사를 표하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회장은 오는 2013년도에는 기획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수교단협의회 발전에 힘써나갈 것을 피력



하고, 아울러 명년에는 상임고문과 의논해서 보수원형찾기운동 세미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회장은 또 한국 교회가 위기라며 이구동성으로 뜻있는 목회자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서구문명이 들어와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니까 영적으로는 더욱 부패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문명에 휩싸여 자유주의와 물질만능

주의와 이기주의와 세속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자기중심에서 말씀중심으로 돌아가고 자유주의 신앙에서 보수주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인본주의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회복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보수교단협의회가 보수신앙으로 굳게 뭉쳐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기도하면서 노력한다면 혼란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언젠가는 한국교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대선과 국가의 안정과 한국교회와 보수교단협의회를 위해 더욱 기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광고가 이어지고 증경대표회장 남성운 목사 의 축도와 한상용 목사(예장 호헌총회장)의 오찬기도로 송년회 만찬은 화기에애한 가운데 진행했다.

분열과 갈등의 한국교회 치유할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제시

→ 1면에 이어서

또 "한국교회가 지금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나무 목회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하사가 23명에서 개척을 하며 시작한 현장 목회자의 땀과 눈물이 스며있는 강의가 감동적이었고 성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목회 방법임을 느꼈다"라는 다양한 소회를 밝혔다.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1세대의 순교적 희생과 순결한 신앙의 꽃씨를 뿌리며 한국 사회에 안착했다. 그리고 2세대를 지나면서 야성적 영성과 불타는 사명감으로 세계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의 꽃을 피웠다. 한국교회는 외면적 성장과 규모로 보서는 가히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라 할 만큼 큰 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막강한 위상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3세대에 진입한 한국교회는 위기와 갈등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교회 개혁과 성장의 주역들이 2세대 목회자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영적 리더십이 실종되고 점점 혼돈과 공허의 블랙홀에 빠져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지금도 수많은 목회 프로그램과 성경공부, 설교, 부흥집회를 통하여 회심과 변화를 외치지만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치유, 이미지 회복, 부흥 열기의 재 점화는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때에 3세대 대표 개척목회자인 소강석 목사의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는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져 상처 받고 신음하는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길을 열고, 창조적 대안과 활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나무 신앙이 꽃 피고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

한편 소강석 목사는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그랜드엠베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5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소 목사는 한국교회 앞에 제시하는 '생명나무 신앙'을 국내외 저명한 신학자들이 먼저 신학적 검증하고 어떻게 실용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 발표를 한 후 CTS 김경철 회장, 손달익 통합 총회장, 김승규 전 국정원장, 이혜훈 세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한국구약학회 회장 한동구 박사의 축사가 있었다.

죽 성탄과 새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담임 임찬미 목사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 임찬미 목사
장 로 : 최원영
전 도 사 : 이부자 전은혜 정희선
선 교 사 : 할다니엘 황예진 조예스터
반 주 자 : 박시은 박시내 정은주



담임 정대성 목사

개척 8개월 180여명 성도

섬기는 분들

음악목사 김광한 목사
장 로 임연선, 장덕남
안수집사 진대박
권 사 김현애
명예권사 정순례
집 사 강축복(민정), 김광희,
김동례, 김은자, 김현숙,
문광석, 박함(선호),
송정희, 윤정옥, 이은희,
이주석, 이춘구, 정숙현
(예진), 유영주

대한예수교
장 로 회

강남복된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05-18

예·배·시·간
주일날 예배 :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9:00
주일저녁집회 : 주일 오후 7:30
청년부 예배 : 주일 오후 2:00
심야기도회 : 매일 오후 9:00
학생부 예배 : 주일 오전 9:00
축복성회 : 매주 금.토 저녁 9:00~
주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매주 주일 저녁 7:30~

찾아오시는 길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토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 《불교인 전도 특별성회》(3)

신용주 목사
(한밀교회 담임)

여기서 불교가 탄생하게 된다. 불교는 철저하게 무신론이다. 근본적인 교리는 신은 없다.

영혼도 없다. 귀신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석가모니의 첫 번째이다. 그는 또 나는 절대 신이 아니다. 고 했다. 나는 평범한 인간이다. 절대로 내가 죽거든 나를 섬기지 말라고 유언했다. 석가가 어떻게 죽었는가? 어느 날 총나라는 제자의 집에 갔는데 총나란 사람이 석가를 죽이려고 돼지고기에 독약을 넣었고, 석가는 그것을 먹고 이질에 걸리게 되고 설사를 하다가 죽었다.

불교는 철저하게 무신론, 근본적인 교리는 신은 없다.

영혼도 없다. 귀신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석가의 가르침이다.

그때 안한다. 라는 제자가 석가에게 물었다. 스승이여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신이요 천사요, 그때 석가는 나는 신도 천사도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나는 깨달은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절대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과 진리를 위해 수도해라, 나를 의지하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한 석가이다.

그 후 석가모니가 죽고,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허탈하고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석가모니 불상을 만들고, 그때부터 종교가 된 것이다. 만일 지금 석가모니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지옥에서 보면 가슴을 치고 한탄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믿을 듣지 않는냐고 눈물로 통곡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석가에게 복 달라고 절을 하고 목탁을 치고 있으니... 기막힐 일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천하 인간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행 4:12). 예수님만이 유일

한 진리이다(히 13:8).

모든 종교를 만든 마호메트 석가 공자 등은 다 무덤 속에 누워있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다. 석가는 불로 태워 화장을 했고, 석가는 인간이다. 예수님만이 진리이다. 석가는 나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진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7년 대 환난과 재림 외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석가는 예언 한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히13:8절 "예수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석가모니가 한번은 길을 가다가 어느 여자가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녀는 석가를 붙잡고 우리 아들을 살

본이 집עד가 이 물을 떠다놓고 절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여기에 귀신이 붙는다. 불상도 아무것도 아닌데 불상에게 절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귀신이 붙는다. 절간에 귀신이 버글버글하구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들은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가? 왜 그럴까? 악한 귀신종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불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불교의 구원관과 기독교의 구원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구원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 일체개고인데 일체 모든 것이 고통이다. 존재하는 것은 다 고통이다.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다. 완전히 무가 되는 것이다. 느낌도 감정도 슬픔도 기쁨도 축복도 행복도 없는 완전해 내가 없어지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이것을 가리켜 解脱(해탈) 인도 영어로는 이르바나이다. 이르바나는

불이 꺼지다. 란 뜻이다. 이것을 한자로 涅槃(열반)이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요, 그들의 목적은 없어지는 것,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1) 불교는 윤회설(輪回說)을 주장한다.

윤회설은 브라만교에서 나왔다. 그들의 이론이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輪回(윤회)란 내가 전생(前世)에 행했던 업보(業報), 죄를 따라서 업만큼 죄를 지었느냐의 따라서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게 윤회(輪回)이다.

그리고 윤회설에서 육도가 있는데 육도는 천상, 인간, 수라, 아귀, 지옥, 축생을 가리키는데 내가 전생에 업에 따라서 어떤 때는 돼지로 태어나고,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상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끝없이 윤회를 하는데 해탈(解脱)을 한다면 해탈은 생과 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생사를 완전히 초월하는 이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더 이상 태어나고 죽지 않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경은 목사 연신원 제17대 총문회장 취임



진주초대교회 이경은牧사는 청원진주초대교회(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에서 지난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제17대 총동문회장에 취임했다.

연신원 제17대 총동문회장 이경은 목사(진주초대교회)는 취임사에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려고 참석하신 우리 성경연구원 목사님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증경회장님들과 선배동문님들과 임원되시는 분들과 많은 동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고 큰일을 겪을 때마다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태껏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고백합니다.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 17대 회장을 맡고 또 한번 이런 고백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제가 광주의 프인돌교회라는 교회를 찾았을 때에 계시판에 기러기 여정이란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기록하고 한 자매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꼭 교회의 모습 같다.

그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으로 깨우치고 정말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러기들은 40,000Km를 날아갑니다. 이 40,000Km를 날아갈 때에 앞선 기러기가 길의 양력을 갈라주므로 71%를 따라

오는 기러기들이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앞선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 받는 것은 뒤에서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V자 대열을 이루며 "응키 응키"하며 앞서 가는 리더 기러기 "힘내라 힘내라 우리가 있다. 힘내라"하고 응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V자 대열을 이루며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한 걸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자체가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 소리 듣는 것보다 힘내라, 힘내라"하고 응원해 주시면 40,000Km나 되는 먼 여정을 나는 기러기처럼 저도 이 한해를 잘 달려서 정말 우리 증경회장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이 연신원의 위상을 세워라 정말 이 위상을 세우는 일에 동문들의 여러 단체들과 힘을 합하여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취임인사를 했다.

이날 연신원 총동문회 제17대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 취임식에서 강영선 목사(준비위원장,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이희수 목사(부회장)의 기도, 김진욱 목사(총무)가 성경 마2:1~5절을 봉독하고, 정진태 장로(순복음진주초대교회)가 환영사를, 마하나임찬양대(순복음진주초대교회)의 특별 찬양이 있는 후 홍재철 목사(증경회장, 한기총 대표회장)는 "협력하며 비상하는 동문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정원모 목사(증경회장), 정상업 목

사(홍보부회장), 이금옥 목사(운영부회장), 안호원 목사(교육부회장) 등이 특별 기도를, 엄주갑 목사(회계)가 헌금기도를, 연신원 제17대 총문회장 이경은 목사의 취임사가 있었다.

이어서 엄신형 목사(증경회장), 박성배 목사(기하성총회장)가 격려사를, 김병은 목사(증경회장), 엄정목 목사(증경회장), 이양호 목사(연신원 대학원장 겸 학장) 등이 축사를 했다.

이날 총동문회장 이경은 목사는 직전총동문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이양호 목사는 총문회장 이경은 목사에게 취임축하패를 수여하고, 배진구 목사(사무국장)의 광고가 있는 후 황원택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제17대 총동문회 조직은 아래와 같다.

△증경회장:김성광, 류수풍, 백승억, 한승설, 홍재철, 엄신형, 황원택, 김병은, 엄정목, 윤호균, 장항희 목사 △명예회장:이양호 박사, 직전회장 김현수 목사, 총동문회장 이경은 목사, 수석부회장 강영선 목사, 홍보부회장 정원모 목사, 선교부회장 정상업 목사, 운영부회장 이금옥 목사, 교육부회장 안호원 목사, △부회장:강대석, 고창곤, 권병오, 김대성, 김문희, 김병수, 김복남, 김육정, 김찬양, 도옥희, 서재은, 소강석, 엄기호, 엄바울, 유종현, 이희수, 최해권 목사, △사무국장:배진구 목사, 총무 김진욱 목사, 서기 엄기영 목사, 회계 엄주갑 목사, 부서기 김희준 목사, 부회계 김진원 목사, 부총무 박진섭 목사 등이다.

지저스타임즈 창간 7주년 감사예배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신문방송(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은 오는 12월 21일(금) 오전 11시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수락리 버스터 2단지 예복교회(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에서 신문방송 개국 제7주년을 맞아 1부 감사예배, 2부 이사회, 3부 지저스타임

즈 부흥사협의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의 자격은 본지 신문방송 이사진을 우선으로 할 것이며, 협조를 부탁하고, 정식발족 감사예배는 2013년 1월 신년하례회 때 발표할 예정이다.

본사 부흥사협의회 구성은 대표총재 1인,

부총재 2인, 대표회장 1인, 수석상임회장 1인 상임회장 약간 명, 사무국장, 총무, 부총무, 감사단장, 서기, 회계, 간사 등으로 조직하며, 2013년부터 전국을 무대로 회원 교회를 순회하면서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집회를 주도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신문방송을 통해 회원간의 상호 교류를 이루어나갈 예정이다.

죽 성탄과 새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현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 일	보통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새롭방
주 일	유초등부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1회 오전 8시 30분	3층 아동연터
주 일	중등부	오전 8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주 일	영어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책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죽 성탄과 새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담임 광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 예 배 안 내 >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 요 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죽 성탄과 새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죽 성탄과 새해

오산반석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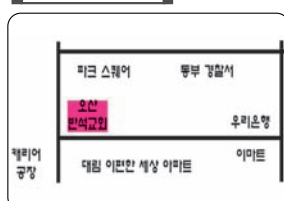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생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일파과점	오후6(주일)
다사이폴스	오후 7:30(화)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학교	오전 9:20
WWA영재교육	오후 1:00(토)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청년부	오후 7:30(토)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http://www.반석교회.kr

한기총, 제23회 ‘대한민국기독교의 밤’ 행사 열려

범종교적 차원,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소속 7대 종단 지도자들도 초청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성탄절을 앞둔 12월 14일(금) 오후 5시 30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기독교의 밤’을 개최한다. 매년 12월이면 열리는 이 행사는 교계와 국가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한국 기독교와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초청, 2012년을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한국기독교의 밤’ 행사는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한국 기독교를 빛내고 지대한 공헌을 한 이들에게 최고 지도자상을 수여 한다. 또한 ‘한국기독교의 밤’ 준비 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었으며, 공헌 정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마련, 심사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지금의 한국기독교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며 “그중에서도 이번 ‘한국기독교의 밤’에서는 최고의 지도자들과 상을 드림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의 열정을 본받아 성장의 한계를 넘어 기독교 중흥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전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기존 ‘한국교회의 밤’에서 ‘한국기

독교의 밤’으로 명칭이 변경된 금년 행사는 범종교적 차원으로 영역을 확대시키며,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소속 7대 종단 지도자들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기독교에 혁혁한 공을 세운 세계적 지도자 賞은 ○정치부분 이승만 건국 대통령, 종교부분 (고)한경직 목사,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한국기독교 자랑스런 지도자賞은 자랑스런 부흥사상 ○(고)신현균 목사(예장통합), 오관석 목사(기침), ○자랑스런 목회자賞은 ○김자연 목사(예장합동), 김삼환 목사(예장통합), ○공로상 지역 목사, 김준규 목사, 조경대 목사, 백기환 목사, 이용규 목사, 이광선 목사, 엄신형 목사, ○자랑스런 언론인상(TV부문), 강경철 장로(cts), ○자랑스런 탈린트상 송재

호 장로, ○자랑스런 음악인상 윤복희 권사, ○자랑스런 방송인상(성우) 김도현 장로(경서교회), ○자랑스런 의료선교인상 박전복 목사, ○자랑스런 선교사상 최바울 목사, ○특별공로상 이상훈 회장(전 국방장관), 이형규 총회장(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총회장), ○특별보도상(기자) 유영대 기자, 류재광 기자, 백상현 기자 등이다.

한편 이날 예배위원은 사회 정학재 목사(예장개혁신 총회장), 개회사 하태조 장로(한기총공동위원회장 준부위원장), 기도 정준모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성경봉독 박홍자 장로(한기총 공동회장), 설교 이만신 목사(한기총 중경회장), 격려사 립인식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축사 지 덕 목사(한기총 중경회장)이다.

희망과 용기를 준 광동의 축제

‘2012 전국장애인합창대회’, 평창 알펜시아서 화려한 개막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주최



세계장애인의 날이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에 대한민국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큰 축제가 펼쳐졌다. UN이 지난 1992년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최공열 장로)가 주최하는 ‘2012 전국장애인합창대회’가 개최되었다. 매년 마다 ‘장애인합창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친화력 증대를 도모하며 전국 장애인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장애인합창대회’는 특별히 올

해는 2013년 스페셜올림픽과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에서 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관심을 모았다.

나눔오케스트라(지휘:김미란)의 오프닝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 이날 행사는 방송인 이지영씨의 깔끔한 사회로 진행되었다.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최규학 실장님의 대독으로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양수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윤봉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의 축사,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최공열 이

사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심사위원(임승중, 우상훈, 정구열, 임학빈, 윤치경) 소개와 임승중 심사위원장의 심사기준 설명에 이어 본격적인 합창대회의 막이 올랐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시·도별 지역예선을 거친 15개 합창팀과 봉사자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열띤 공연을 펼쳤다. 이날 대회는 인천광역시 사나래합창단, 부산광역시 늘푸른합창단, 충청북도 한마음합창단, 서울 은사랑합창단, 대구 아우름합창단, 충남 희망나래합창단, 울산 소리샘합창단, 경기 국제에플브릿지합창단, 강원도 Happy700합창단, 충북 아름다운합창단, 경기 다소니합창단,

서울시 나누리합창단, 제주특별자치도 어울림합창단 ‘따앗’, 강원 라온합창단, 전라북도 여성장애인합창단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별 공연으로 잠울림의 난타 공연에 이어 지난해 대상팀 영월 동강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꾸며져 이날 합창대회는 합창을 통해 장애를 넘어서 아름다운 화음과 멋진 공연무대로 어우러지며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되었다.

합창대회는 지정곡과 자유곡으로 경연이 펼쳐졌으며, 심사는 기본·표현·협동성 각 30점, 현장점수 10점 등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영예의 대상에는 서

을 나누리합창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트로피 및 상금(이백만원)을 받았다. 특별상으로는 제주 “따앗”합창단, 금상은 충남 희망나래합창단, 은상은 경기 다소니합창단에게 수여되었다. 동상 3팀은 멋진 스포츠댄스와 합창이 함께 어우러진 대구 아우름합창단과 강원 라온합창단, 전북 여성장애인합창단에게 수여되었고, 인기상은 부산 늘푸른합창단, 비전상은 충북 아름다운합창단, 강원 평장 Happy 700합창단에게 수여되었고, 화합상은 충북 한마음합창단, 울산 소리샘합창단에게 전달되었다. 멋진 하모니를 선보인 경기 국제에플브릿지합창단에게는 하모니상이 수여되었고, 나눔상은 서울 은사랑합창단, 인천 사나래합창단에게 수여되었다.

전국장애인합창대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예선을 거쳐 본선에 참가하는 참가팀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수준 또한 높아져가고 있다. 장애인문화예술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화관문화훈장을 받은바 있는 최공열 이사장은 “올해 대회는 2013년 스페셜 올림픽과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로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에서 열게 돼 더욱 의미가 컸다”며 “장애인과 봉사자들을 비롯, 1400여명이 참가한 이 행사에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합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장애인 음악예술이 발전하며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문화적인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02-2282-7114, www.nanum.tv)

2013 미자립교회 지원 드림캠프 진행

세종 평화의동산에서 미자립교회 종교등부 대상 드림캠프



사단법인
순성세계복
음 선교 회
(이사장 피
종진 목사)
와 사단법
인 서울
YFC(이사장
김혜원 권

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2013년 1월 14일(월)~16(수) 2박 3일간 세종 평화의동산에서 미자립교회 종교등부 드림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하며 캠프를 통한 은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자립교회를 섬기고자 사단법인 순성세계복음선교회가 주최하고 서울YFC가 주관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가 후원한다.

캠프는 ‘내 안에 빛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와 ‘강점 코칭’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진행되어진다. 코칭은 ‘아주 특별한 대화’를 통해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과 가치를 극대화하여 한 사람이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발견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 시기의 시간을 낭비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목표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캠프에서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들은 모두가 각각 다른 장점과 특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과 특기는 일찍이 발견되어 주변으로부터 충분히 격려 받고 훈련되면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만한 소중한 자원이 된다.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스스로에게 있는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서 발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목표와 목적을 찾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될 것이다.

캠프 주 강사로는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 청소년 각자에게 있는 강점을 찾게 하고 그것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할 홍유희 목사(동신교회 부목사, 통합총회 주일학교 교재 집필, YFC청소년 코칭 강사와, 내 안의 강점을 통해 나의 소명을 깨닫고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게 할 김용재 목사(다.세연 대표), 교사들에게 청소년 선교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사는 올바른 신앙과 인생의 코치가 되어야 함을 교육할 왕동식 목사(서울 YFC 대표)가 나서며 게스트로는 남성 3인조 CCM그룹 라스트가 은혜의 시간을 더해간다.

다른 청소년 캠프와는 달리 간사들과 함께 조별로 운영이 되어 청소년들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활동하며 어울리고 그 안에서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를 배우게 된다.

또한 교사 및 인솔자를 위한 지도자 세미나를 실시하여 교회 청소년부의 영적 성장과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 교사와 교회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미자립교회 중·고등부 학생과 교사이며 신청은 교회당 학생 10명 이하, 교사 2명 이하로 한다. 참가비는 학생, 교사 모두 1만원, 참여하는 인원은 학생 150명, 교사 30명으로 선착순 마감, 캠프 문의는 순성세계복음선교회02408-2727, 서울 YFC(십대 선교회) 023675-1091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 본받아야!

성탄 메시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탄 절기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그리고 불우한 이웃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을 베풀 때 우리들의 착한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빛이 되시길 소망하며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예장웨신 총회장 이재갑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험악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가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신총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학습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약력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사단법인 기독교학원 이사장 ◆세계원주인 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국제기독교지도협의회 총재 ◆전원종교인교 담임목사 ◆저서 성장개론의 다수

설립 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업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본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특 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인수를 받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전형 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불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모집 학과

과 정	학 과	기 간	자 격	비 고
학 부	신 학 과	8 학 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신학교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 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싱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대학원부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 술 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 입 생	각 학 과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澳)University of Sydney (美)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맹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임철환교수(교회정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목)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學大學校大學院
박종혜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우금 교수(MBTI) : (Ph.D)이화여자 대학교, 피어선신학 대학원 대학교
박상규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學院
안병삼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 : (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은 다수필사본계열에서 번역된 성경이며 일명 수용원론 TR원론 성경이라고도 한다. 영어성경으로는 KJB이다. 한글성경은 원어신약 성경(신약원어 연구원 송중섭), 한글 킹제임스성경(말씀보존학회 이송오), 권위역 성경(안타오 박만수), 흠정역 성경(그리스도 안에서 정동수)이다.

전수성경(전수성경공회 이태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서계열은 소수필사본과 중립사본이라고 하며 수정원론 NA원론 성경이며 연합성서공회 원문이다. 영어성경으로는 KJB를 제외한 대부분이며 대표적인 것이 NIV와 NLT성경이며 한글성경은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한다.

마 5: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마 24:35절에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막13:31, 눅21:33)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셨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이라고 삭제된 구절이 나오는데 13구절이다. 마17:21, 18:11, 23:14, 막 9:44, 46, 11:26, 15:28; 눅17:36, 23:17; 행8:37, 15:34, 행28:29; 롬16:24절인데 이중에서 특히 7구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① 마17:21: 그러나 기도와 금식으로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들이 기도와 금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꾀계를 알아야 하겠다. ② 마18:11: 이는 인자는 잃은 자를 구원하려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감추는 의미로 삭제 되어있다. ③ 마 23:14: 화 있을 진저 너희 외식을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는 너희는 과부들의 집들을 삼키며 또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런즉 너희는 더욱 중한 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④ ⑤ 막9:44, 46: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또 불도 꺼지지 아니 하느니라. 이 구절을 삭제하므로 지옥이 없는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다. ⑥ 막11:26: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독교는 용서가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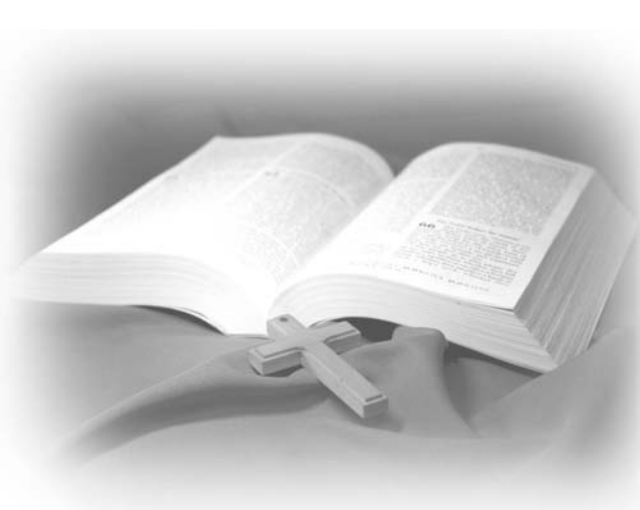
⑦ 눅17:36: 두 사람이 들에 있오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또 하나는 버려둬를 당할 것이니라. 주의 재림 때 자신들이 데려감을 당하지 못 할 것을 알아서 인지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다. 행8:37: 이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네가 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가하나라. 이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고백 이후에 빌립에게 구스 내시는 침례를 받았다.

침례의식이나 세례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이 중요하다. 의식에만 참여하고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 갈 수가 없다.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 막아 자신도 타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 때에는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믿는 자를 두루 삼키려고 한다. 이 구절들이 삭제되어서 그런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마귀들의 역사에 흔들리

고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에는 삼위일체 구절이 삭제 되어있다. 요일5:7: 하늘에서 증언 하는 이들이 셋이 있으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셋이 한분이니라.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삼위일체교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다수필사본)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소수필사본, 중립사본)을 비교 해보면 삭제된 단어가 2200단어 정도인데 이 삭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다수필사본)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소수필사본, 중립사본)

제된 단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단어들인 ‘피’, ‘십자가’, ‘거룩’, ‘정직’, 등이다.

골1:14: 그분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들의 사함까지도 얻었다. 죄들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음인데 이 구절이 삭제 됐다.

왜냐하면 그리스어 수정/비평하여 중립사본을 편집한 호르트 박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중립사본을 편집했기 때문이다.

막10:21: 그때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네 길을 가라 너는 네게 있는 것을 팔아라 또 너는 가난한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삭제되어 있으므로 십자가들은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리하므로 오히려 천국 문을 막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삭제되므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육으로 마치는 일들을 하게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간교한 마귀의 인도인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인도인 줄을 분별치 못하여 한국의 교계는 교리교파논쟁과 이단정죄와 이권다툼과 명예

쟁탈전 등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었다.

롬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 구절을 수정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롬14:10: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또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라는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로 수정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가?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같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삼급심판석으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10고을 혹은 5고을 혹은 2고을 받아서 1000년 동안 예수그리스도와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는 심판석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서는 시상대 단어이다. 하나님의 심판석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이다. 이 심판 후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는 다시는 죄들과 불행들과 범죄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가느냐 영원한 멸망을 가는 나를 심판하는 자 심판석이 하나님의 심판석이다. 거룩이란 단어는 다섯 번이나 삭제하였다마25:31, 살전 5:27, 벰후1:21, 예18:21, 22:6)정직 이란 단어가 삭제되어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직하게 살면 바보로 취급받고 이상하게 보는 시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데 성경에 정직이란 단어가 삭제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듯싶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였지만 교회들 자체가 성전 짓기에 교육관 사들이기에 대형버스구입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웃을 돌아 볼 겨를이 없다.

교회에서 이웃을 돌아본다면 세계 자살 1위국 오명을 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오역된 구절은 마21:28-31: 판아들과 둘째아들이 바뀌었다. 세상의 책도 그 내용이 뒤바뀌어지면 재판 할 때 바로 잡아서 고쳐서 기록하여 출판하는 데 현재 개역 개정에서는 66번째 나온 성경이다. 72.712곳을 고쳤다고 하나 여전히 13구절을 옳고 ‘피’, ‘십자가’, ‘거룩’, ‘정직’, 등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삭제되어 있는 것은 원문이 다른 성경에서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 MTR-school 성경연구원은 구약(벤아세르 MT)과 신약(TR원문)에 의한 강의로 사도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인 교육이다. 1.계시록 원전, 2.히브리어 문법, 3.헬라이어 문법(전준덕 교수), 알기 쉬운 52주 헬라이어 문법 저자 강익, 4.영어 문법, 5.계시록 등을 강의 중...

〈다음호에 계속〉

김수정 원장

성경연구원
jintv/영송신문
운영이사
031)767-7651
010)7520-7651



황성주 박사의 건강학

낮잠으로 피로를 풀어라! (44)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엡 5:15)

출퇴근 시 버스나 전철 안에서 종종 보는 진풍경 중의 하나는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토막잠을 자는 모습이다. 심지어는 서서 조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직장에서 사무실 책상 위에 팔꿈치를 대고 손으로 턱을 괴며 말쑥함을 자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짧은 수면이지만 잠을 보충하는 데는 토막잠이나 말쑥잠만큼 효과가 높은 것도 없다. 꾸벅꾸벅 잠을 10분 정도 자고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

최근 미국 브라운의대 연구팀은 인간의 뇌는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일정시간의 낮잠을 필요로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특히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의 경우 낮잠을 통한 뇌의 휴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낮잠을 잘 필요가 없을 만큼 건강한 사람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면부족이나 잠을 설쳤을 경우 낮잠은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낮잠을 많이 자면 오히려 머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낮잠은 30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불규칙적인 낮잠은 불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낮잠시간은 가능한 짧게 규칙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떻게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낮잠을 잘 수 있겠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이 경우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한 시간여의 점심시간을 잡았거나 오라 등으로 소모시키지 말고 단 10분이라도 낮잠을 자라. 특히 식곤증이 심한 사람이나 오후만 되면 맥이 빠지고 피로가 가중되는 사람에게는 낮잠이 보약이다. 뇌와 몸의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생체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낮잠만큼 짧은 시간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간편한 처방이 있겠는가. 꼭 잠이 오

지 않아도 좋다. 바른 자세로 누워서 다리를 조금 높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상쾌한 오후를 맞이하는 비결 중의 하나이다. 의자에 앉아서 조는 말쑥잠이나 토막잠도 스트레스를 풀고 무거운 몸을 가볍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자기 몸의 상태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이 쉴 때인지 일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이불일 때인지 서서히 할 때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휴식도 일의 연속임을 알아야 한다. 일과 휴식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이를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을 깊게 살 수 있는 법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건강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빨리 인식하고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무한한 건강』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꼭 해야 할 일』은 대충 하고『안해도 되는 일』『해서 안 될 일』에 몰두하는 현상이 안타까울 뿐이다.

크리스천은 마땅히『꼭 해야 할 일』과『안 해도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대신할 사람은 나 외에 아무도 없음을 알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등한시하고 큰 일만을 추구하는 크리스천이 의외로 많은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주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에게 큰일을 맡기신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 내에서『지금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완수하는 일』에 영적 실체성이 있음을 왜 모를까.

황성주 박사



죽 성탄과 새해



담임 정연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정규예배

주일 전통예배(주) 오전 9시 (미인보우 이트홀)
주일 현대예배(주) 오전 11시(미인보우 이트홀)
주일 청년예배 오후 2시(미인보우 이트홀)
주일 오후예배 오후 3시(미인보우 이트홀)

기도회 및 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3시(미인보우 이트홀)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미인보우 이트홀)
수요기도회(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미인보우 이트홀)
경로교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미인보우 이트홀)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정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98-1)
Tel. (032)552-5200 Fax. 552-5204

죽 성탄과 새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교회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담임목사 오중설

문 화 교 실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수보 밤 예배	수보 밤 1:30
공요영성치유집회	공요 밤 9:00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 고등부	토요 오후 4:00
대학부	토요 오후 6:30
성년회	토요 오후 6:30

순번	구 분	시 간
1	총신서무이과대부	토요 오전 11:00
2	바목교실	주일 오전 10:00
3	탁구교실	주일 오전 12:00
4	재지훈련	주중 평한시간
5	순도인 축구교실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순도인	주중 매일
8	재직연년	주중 매일
9	홍성아동방과후교실	주중 매일
10	총신성경대학	오전반 [수, 목] 오후반 [화, 목]

한국기독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죽 성탄과 새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s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 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오전 9:00	4층	장년부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4층	주일오전예배	오후 2:00	대예배실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주 일	오후 3:30	대예배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청년부	토 요 일	오후 5:00	4층	나사렛성전	
성경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오후 8:00	2층	대예배실	
셀 예배	각 일 예배	셀 가정방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4층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 02)3402-2714

죽 성탄과 새해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철성서수원원)

www.scogop.net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령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철 수원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철)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W.C.C 를 배격하는 7대 이유<3>

<지난호에 이어서>

W.C.C는 세속적인 기독교통합운동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칼 마르크스냐, 예수 그리스도냐?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는 선택하라 조셉 A. 해리스. 손에는 성경을 들고 목에는 목주를 건 마사이족의 여인, 턱수염을 수북이 기른 러시아 정교회 주교, 사리를 걸친 스리랑카 여인-1975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 총회에 참석한 술한 대표단 중에는 이와 같이 이채로운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었다. 대표단의 거의 반수가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그들의 연설에는 이 대회를 감싸고 있던 호전적인 반서방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당시 자메이카 수상이던 마이클 맨리가 등단하여 인민민주주의가 자본주의 국가들을 밀어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자 장내에는 요란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18일 만에 막을 내린 이 총회는 '인종차별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 계획'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이는 혁명 게릴라운동을 포함한 각종 정치조직과 단체들에 재정지원을 하자는 것을 그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회의는 또한 서방세계 화사들이 제3세계에 침투하여 "착취"를 일삼고 있는바 그들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도 채택했다. 그리고 소련이 앙골라 개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단적으로 말해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라 칭하는 이 기독교교회연합 단체는 기독교 못지 않게 공산주의에 의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었다.

W.C.C는 이와 같이 1975년 대회 때 이미 그 심상치 않은 색채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 술한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8년에 W.C.C가 '로디지아에국전선'에 8만 5000달러를 주었다고 발표하자 그를 계기로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고 W.C.C에 대한 지지를 재고하기 시작했다.

'로디지아에국전선'으로 말하면 당시 로디지아의 백인 정권과 무력투쟁을 벌이던 버젓한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로서 그때까지 207명의 백인 민간인과 1712명의 흑인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불과 수주일 전만 해도 9명의 백인 선교사와 그들의 아이를 죽인 살인집단이었던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런던의 '데일리 익스프레스'지는 이렇게 큰 제목을 달았다. "살인보조금-로디지아 선교사 살해법들 W.C.C로부터 현금지원을 받다." W.C.C 창립멤버의 하나인 구세군은 그 조치에 항의하여 W.C.C로부터 잠정적으로 탈퇴했고, 또한 에이레의 장로교회는 W.C.C의 그 조치를 '도착된 인종주의'라 규

탄하고 역시 일시 탈퇴를 선언했다.
부폰 희망,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즉 W.C.C는 1948년 각종 분파로 흩어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보겠다는 희망하에 창립된 이후 오늘날 4억의 신도를 포용하고 있다. 그러나 W.C.C는 창설 이래 현실정치에 대한 참여를 점점 더 적극화하고 폭력세력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등 그 창설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단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이러니는 실로 비극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W.C.C는 잘만 운영하면 많은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W.C.C는 창설 이래 수백만의 전쟁, 천재지변의 희생자들을 도와 왔으며 200만이 넘는 난민이 그의 자금 지원으로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W.C.C는 해를 거듭함에 따라 정치문제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W.C.C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

가령 협의회의 세계선교 및 전도위원회 위원장인 우루과이의 에밀리오 카스트로는 이렇게 말한다. "자본주의의 철학적 기반은 악(惡)으로서 복음과는 전적으로 상치하는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W.C.C의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참여 방침은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산하에 "인종차별타파지원금"이라는 것을 두게 되었는데 W.C.C는 그 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배정했었다. 이 기금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역원들 중에는 미국의 정치, 경제생활 양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워싱턴의 좌익 연구기관인 (정책연구소)에서 온 미국인 프랙시 네스비트가 끼어 있다.
이 특별기금은 그 용도를 명확히 지정하여 제공된 현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도적인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 W.C.C는 500만 달러의 자금을 30여 개국에서 이른바 인종차별정책과 싸우고 있다는 130개가 넘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나눠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금액의 거의 반이 남아프리카의 백인정권을 폭력으로 쓰

쿠바, 중국, 에이레공화국(IRA),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그리고 미국공산당과 연관을 맺고 있다.
○국가안보연구센터 : 주로 CIA와 FBI의 활동을 뒤쫓으면서 미국의 정보활동에 재동을 걸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좌익단체,
믿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은 리투아니아인, 우크라이나인, 회교도, 복음주의적 기독교와 같은 소수인종 및 종교인들이 노골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곳이 소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소련의 반체제 인사들을 위해서는 한 톨의 돈도 나눠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W.C.C는 소련만은 각별히 부드러운 손길로 봐주고 있다. 보통 때는 것처럼 인권문제에 말발이 센 것이 W.C.C지만 그 W.C.C가 이디오피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사태에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다.
이디오피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래 1만 명 이상의 정치범이 재판 없이 학살당했고, 200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 W.C.C 집행위원회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 가자, 침공 후 2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로 인해 긴장이 높아졌다"고 한 마디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같은 코무니케에서 엉뚱하게도 북대서

양기구(NATO)가 유럽에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뇌거렸다.
소련정부의 인권유린사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W.C.C 직원들은 크렘린과 상대하는 데는 조용히 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변명한다. 사실 W.C.C가 소련내의 반체제 종교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가지고 모스크바 당국에 정중한 문의를 보낸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W.C.C의 그 따위 문의는 하나도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
W.C.C는 또 소련을 비난하지 않는 이유로서 소련을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정교회가 W.C.C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반문한다. 그러나 크렘린의 비위를 계속 맞추는 목적이 러시아정교회 대표단을 W.C.C 회원으로 묶어 놓는데 있다면 그것은 너무도 비싼 대가가 아닐 수 없다. 영국의 기독교복음증거운동의 대표인 버나드 스미스씨처럼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연구센터 : 주로 CIA와 FBI의 활동을 뒤쫓으면서 미국의 정보활동에 재동을 걸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좌익단체,
믿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은 리투아니아인, 우크라이나인, 회교도, 복음주의적 기독교와 같은 소수인종 및 종교인들이 노골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곳이 소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소련의 반체제 인사들을 위해서는 한 톨의 돈도 나눠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W.C.C는 소련만은 각별히 부드러운 손길로 봐주고 있다. 보통 때는 것처럼 인권문제에 말발이 센 것이 W.C.C지만 그 W.C.C가 이디오피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사태에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다.
이디오피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래 1만 명 이상의 정치범이 재판 없이 학살당했고, 200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 W.C.C 집행위원회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 가자, 침공 후 2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로 인해 긴장이 높아졌다"고 한 마디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같은 코무니케에서 엉뚱하게도 북대서

양기구(NATO)가 유럽에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뇌거렸다.
소련정부의 인권유린사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W.C.C 직원들은 크렘린과 상대하는 데는 조용히 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변명한다. 사실 W.C.C가 소련내의 반체제 종교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가지고 모스크바 당국에 정중한 문의를 보낸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W.C.C의 그 따위 문의는 하나도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
W.C.C는 또 소련을 비난하지 않는 이유로서 소련을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정교회가 W.C.C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반문한다. 그러나 크렘린의 비위를 계속 맞추는 목적이 러시아정교회 대표단을 W.C.C 회원으로 묶어 놓는데 있다면 그것은 너무도 비싼 대가가 아닐 수 없다. 영국의 기독교복음증거운동의 대표인 버나드 스미스씨처럼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손기태 박사
AVA 아카데미,
마라나다 한빛교회
담임목사
JTNTV방송,
본지 상임고문



통일교 문 교주 사망 후 내부단속 다지기

2012년 9월 3일 통일교 문선명 교주 사망 후 통일교가 내실을 다지는 전략으로 바꾸고 있다. 통일교는 문 교주 사망 후 거창한 사회사업보다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종교적 내부결속을 다져서 문 교주의 사망으로 부재에 따른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통일교 내부를 철저히 단속하여 통일교 교세 확장에 주력하면서 종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부인 한학자가 최근 교단 고위직에서 "교회성장과 조직 강화를 위해 내실을 기하자"는 한학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외적인 행사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교회 성장을 위해 내실을 기하고 선교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선언했다"면서 통일교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부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문 교주가 창설한 피스킵과 여자부 피스킵의 잠정중단 결정되었고, 최근 피스킵 조직위원회를 해체한데 이어 충남일화 여자실업 축구단의 해체 절차도 밟고 있다.
통일교는 당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국제축구대회인 피스킵을 잠정 보류상태로 중단하는 등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교회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성남일화 축구단은 그대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인들은 통일교 척결위해

다같이 기도하며 동참합시다”

통일교 측은“합동결혼식은 2~3년에 한 번씩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3년부터는 7남인 문형진 세계회장이 합동결혼식 주례를 맡는다”고 밝히면서 매년 2월에 열었던 합동결혼식도 축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 평화자동차를 비롯한 대북사업도 현상 유지 수준으로 검토 중이고 종교로는 최근 인천, 대구교구를 신설해 국내교구를 기존 13개에서 15개로 확대하는 등 교회성장을 할 것이라고 통일교측은 밝히고 있다.

통일교 내부조직을 가정국, 문화국, 대외협력국을 신설하며 조직을 시스템화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선명 교주의 2녀 문인진은 2012년 9월 9일 통일교 미국 회장을 사퇴하였으며, 문선명의 7남 문형진이 9월 20일에 통일교 세계 회장겸 미국회장을 취임하여 미국을 순회하면서 통일교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통일교 내부 단속을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예수심자기를 통한 구원은 실패라고 주장하는 통일교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함께 싸워 나가서 통일교가 이단이라고 만민에게 외쳐야 통일교에 들어가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서“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은 통일교 제품, 시설을 불매·불사용 운동을 하여 통일교 척결운동에 다 같이 힘을 보태야 할 때이며 ‘한국 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통일교 척결에 다같이 동참합시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선 목사
통대협 사무총장



축 성탄과 새해

표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요16:11)

“새빛중앙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오직 예수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초대교회적인 순수한 교회로서 말씀과 찬양이 함께 하는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모임안내>
주일새벽예배 오전 11:00분당
주일침상예배 오후 2:30분당
수요예배 오후 7:30분당
청년부 오후 1:20
금요기도회 (금)오후 9:00
주일학교
유치부 주일오전 11:00
구역예배 (토)구역별
새벽기도회 (주일~금)오전 5:00로 환영

대한예수교장로회
SEBIT CENTRAL PRESBYTERIAN CHURCH
446-91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298-17
☎ 031) 284-3927, 3926, www.sebit.or.kr

담임 지태일 목사

축 성탄과 새해

신천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예배	1부:09:00 (오전) / 2부: 11:00 (오전)
주일오후 예배	02:30 (오후)
삼일기도회	07:30 (오후)
새벽기도회	월~금 05:30 (오전) / 토 06:20 (오전)
부서별기도회	금요일 09:00 (오후)
새가족	12:30 (낮)
청년부	02:00 (오후)
청소년부	11:00 (오전)
초등부(1~6학년)	09:00 (오전)
유치부(6~7세)	11:00 (오전)
영아부(3~5세)	11:00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천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동 1612-7
☎ 02)859-3671 FAX 02)859-3673

담임 이재성 목사

축 성탄과 새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살전 3:8)

안천의 3대 비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변화된 세상

담임 유영섭 목사

◆ 예배와 교육안내 ◆

예배	주일 새 예배: 1부(오전) 2부(오전) 1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주일침상예배: 오후 2시50분 구역 예배: 각구역별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수요기도회: 오후 9시
주일학교	유치부: 유재부설(지하1층)오전1시 청소년부: 청소년부(지하2층)오전9시 아동부: 아동부설(지하1층)오전9시 영아부: 오전 10시30분(1층 영아부설)
평신도 교육	새가족: 주일 오전 10시20분 성경연구: 화요일 오후 8시 성경일독: 이동부설 주일 오후 1시 베를린경: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445-380) 경기도 화성시 안성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담임 유영섭 목사

축 성탄과 새해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특별세미나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강의내용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강사의 저서 : 20 여종 특별헌신

참석자 전원에게 '연약의 무리' 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
(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권웅)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원포미션 총재
- 기독교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1. 은혜의 강물

성경: 에스겔 47장1절-5절 찬송가 336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강물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다도 건너고 도시로 가로질러서 이 땅위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 깊은 데로 흐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풍성해 질수록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신앙 부흥이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확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신령의 영적 풍요와 결실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적시는 삶을 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복음의 능력

성경: 에스겔 47장5절-12절 찬송가 354장
본문 8절을 보면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할 연을지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인한 복음의 역사는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사도 요한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복음은 언제나 죽은 심령을 소생케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영원하신 주의 말씀 영혼을 소생케 하는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약속하신 땅

성경: 에스겔 47장13절-23절 찬송가 493장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 질 것만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감사하는 자의 복

성경: 에스겔 48장1절-12절 찬송가495장
본문의 내용은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 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 그 다음을 준비하신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구별된 것을 지키라

성경: 에스겔 48장13절-20절 찬송가492장
본문은 두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인들의 땅이요, 다른 하나는 성읍을 세울 땅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위에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니라." 이것은 성소의 제사장들에게 준 땅입니다. 이것은 양도 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그 땅에서 살 수 있고 그 땅을 상속할 수는 있지만 그 땅을 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거룩히 구별된 것들을 거룩히 여길 줄 아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 하나님의 의지

성경: 에스겔 48장21절-29절 찬송가500장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 받는다는 것은 영생의 기업에 참여한다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배 기준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였습니다. 단순히 동편에서 서편까지 다섯 지파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땅은 기업을 가리키고 기업은 삶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과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무조건적이며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나의 공로로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쉬지 않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 회개를 촉구하심

성경: 스가랴 1장1절-6절 찬송가317장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에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며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열조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그 후손된 백성들이 깊이 반성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며 말씀으로 바로서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교회에 임재하시는 주님

성경: 스가랴 1장7절-21절 찬송가541장
스가랴 선지자가 계시를 본 때는 밤이었으며 장소는 화석류 골짜기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본 골짜기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홍마를 타고 찾아오심을 보여주는 이상입니다. 여기서 화석류나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의 출입을 기쁨으로 여기고 가정역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가정을 섬기고 만 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9. 신속하게 도우시는 주님

성경: 스가랴 2장1절-5절 찬송가404장
본문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분주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신속하게 천사들을 부리시며 우리를 돕도록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회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끝까지 도우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기뻐할 줄 아는 가정

성경: 스가랴 2장6절-13절 찬송가46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원수들과 마귀를 멸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인즉 기뻐하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소리 높여 기쁨을 외치라는 말이며 이러한 말씀은 메시아의 강림과 결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신 것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고난과 문제 앞에서 당당히 기뻐할 줄 아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언약의 하나님

성경: 스가랴 3장1절-5절 찬송가 329장
하나님은 성민의 두려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 입히시며 금상첨화로 그 위에 정한 관을 씌우시고 위로해 주시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민을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므로 성도는 두

려워 말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지금 당장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아도 반드시 도우신다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복을 뺏기지 말고

성경: 스가랴 3장6절-10절 찬송가 374장
본문은 여호와께서 사제의 은총으로 성직을 회복시킨 성민에게 메시아 약속의 증거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명령 이행자에게 영원한 정결을 보장하고 영육간 질병을 막아주며 영혼을 소생케하고 지혜롭고 의롭게 되는 새 생명의 약속이고 복을 지킬 것이며 천사들과 왕래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에도 이러한 예비된 복이 있음을 깨닫고 뺏기지 말고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 성령충만한 가정

이달의詩

역세가 아니라오

나는 역세가 아니라입니다.

가냘픈 바람결에도
어렵듯 못하는 날 보았더면
나를
역세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둘이만 듣는
연인들의 속삭임에도
농침없이
하나, 둘 담아내는
부드런 내 모습 보았더면
나를
역세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역세지 아니합니다

가을을 살포시 비벼대는
가냘픈 연인의 손끝에도
하이얀 꽃망울
가누지 못해하여
하늘 향해 풍선 되어 흩뿌려지는
내 모습 보았더면
나를

성경: 스가랴 4장1절-14절 찬송가 507장

본문에서 말하는 스가랴에게 임한 '일곱 등잔'과 '순금 등대'의 계시는 오직 "여호와와 신"으로 서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신'이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성령 충만하여 그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입만 열면 예수님만 튀어 나오고 움직이면 예수님 모습만이 나타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성경: 스가랴 5장1절-4절 찬송가 214장
본문에서 스가랴는 도적질과 맹세의 범법자를 찾아 저주의 불을 퍼붓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빨리 왕래하며 퍼붓는 저주란 징벌의 속도가 무한히 민첩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물질과 시간과 도적질한 죄와 거짓 맹세한 것을 이행 못하는 존을 다투어 회개하고 갚지 않으면 여호와와의 저주를 면할 수 없음을 알게하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역시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세다 하지는 않았겠지요

나는 역세가 아니랍니다

역세단 한마디 언어에도
품지를 못하여
이파리 가슴마다에
갈기워진 명든 상처 보았더면
역세다 하지는 않았겠지요

아침이슬 한 방울에도 힘에 겨워
한나절을 견디지 못하고
주르륵 흘러 내리우는
그 눈물 자욱 보았더면
역세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타는 저녁 노을 속엔
수줍음 이기지 못해하여
함께 붉어지고
숨을 곳 찾아드는
그런 역세일 뿐입니다

나는 역세 되지 못하여
역세 되었는데
그래도
나는 그저
할 수 없이 붙여진
이름만 역세일 뿐이지요

정기한 시 모음 2집 '조약들의 속살임' 중에서

죽 성탄과 새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 대한노회 노회장)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복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 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예배시간안내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 010-4436-7060

죽 성탄과 새해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영복샘전인치유센터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업의회 강사단장
- 기독교인터넷방송부흥협의회부총재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영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경호 : 만성변비로 가이거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제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 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교월한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 ※ 이 외에도 많은 간증문이 있습니다.

집회특징

- ♥ 신유, 예언, 상담이 정화함(사 11:2, 요엘 2:28)
- ♥ 병 고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행 19:11-12)
- ♥ 원인 불명의 불치병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사 41:3)
- ♥ 성령의 기쁨부음으로 온사 절복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 ♥ 회개와 방언의 온사가 나타난다(막 16:17-18)
- ♥ 사명이 회복(복회, 전도, 봉사, 섬김)되는 성회(렘 4:11-12)
- ♥ 첫 사랑과 전도의 열정이 회복된다(신 6:12)
- ♥ 영권, 인권, 물건 열리는 성회(대상 4:10)
- ※ 일일간증집회, 헌신예배, 금요철야기도회, 2박 3일 성회, 교회형편대

담임목사 : 010-8537-8291 / 교회 : 053) 752-8238

죽 성탄과 새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리교회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담임목사 오상렬
(본지 상임이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죽 성탄과 새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담임 이재간 목사
웨신총회 총회장
본지 상임이사

21세기 비전

- 1. 하늘에 성읍을 많이 쌓으라
- 2. 온전과 전라가 가득한 교회
- 3.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
- 4. 땅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2012 목회 지침

- 내 장막터를 넓히라 (사54:2)
- 성령의장막터를 넓히자——은사
- 영혼구원의 장막터를 넓히자——세계선교
- 섬김의 장막터를 넓히자——섬김
- 축복의 장막터를 넓히자——나눔

부목사 : 송승길
장로 : 박관순, 김혜자
전도사 : 임시량 최원희 박애쓰더
협동전도사 :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신천교회 이재성 목사 임직 감사예배 드려

관악구청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신천교회로 성장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 남부노회 신천교회(담임 이재성 목사)는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 소재 본당에서 지난 2일(주일)오후 2시 30분 안수집사 임직 및 권사취임과 퇴임식을 가졌다.

올해로 52주년을 맞이한 신천교회 담임 이재성 목사 인도로 임직 예배가 시작되어 손종필 목사(늘푸른교회 남부노회 총무)가 기도하고, 인도자 이재성 목사가 성경 눅 12:36-38절을 봉독한 후 성가대의 찬양이 있었으며, 유영섭 목사(안천교회, 증경노회장)는 "기본이 되어 있는 일꾼"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유영섭 목사는 임직을 받는 안수집사, 권사와 제직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신천교회가 임직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 갈 것을 기원했다. 또한 임직자들은 다른 일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

고, 교회를 섬겼을 때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했다.

아울러 임직자로 세움을 받은 일꾼을 통해서 신천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총회와 한국 교계에 아름답고 귀한 소문을 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했다.

이어 임직식에서 길경근, 소순성, 조완호 씨를 안수하여 안수집사로 세우고, 조순이, 유순재, 김호숙 씨를 권사로 임직을 선포했다. 또한 송길순, 유양순, 강방자 권사가 권사퇴임을 했다.

이날 안창근 원로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길경근 안수집사의 답사가 있었다. 이어 호산나 중창단의 축하와 정영섭 장로의 광고가 있는 후 유영섭 목사(증경총회장)

축도로 성은 중 마쳤다.

한편 신천교회는 52년 전 포도밭 농장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였으며 그 포도밭이 변하여 오늘날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왔다. 담임 이재성 목사를 중심으로 관악구 신원동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구성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교회이며 칭찬받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다. 주보에 신천교회의 공동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2012. 헌신 시간, 물질, 재능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하고 1. 예수님의 모범을 좇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2. 예수님의 사역을 좇아 제자들을 세우며, 3. 예수님의 가르침을 좇아 지체된 이웃을 사랑하며, 4. 예수님의 명령을 좇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했다.



3박4일 성경 통독 및 성회 은혜롭게 마쳐

등불교회, 주예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지난달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인천 남구 송의동에 위치한 등불교회(곽영민 목사)에서 한해를 마감하며,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자는 의미에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오세승 목사를 강사로 성경통독을 실시했다.

한때 한국교회에 큰 붐을 일으켰던 성경통독 운동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는데 강사 오세승 목사는 꾸준히 성경통독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에 등불교회를 필두로 다시 한 번 성경을 사랑하며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며 3박4일간 통독을 진행했다.

성경통독에 뜻을 같이한 이웃교회 목회자들도 동참하여 더욱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다. 이번을 계기로 담임 곽영민 목사는 앞으로 매년 성경통독을 교회에 정착시키기로 하였으며, 강사 오세승 목사를 비롯한 지역 목회자들과 연합하여 성경통독의 붐을 일으켜 보겠다고 포부

를 밝혔다.

아울러 마지막 날 밤 성회는 등불교회에서 운영하는 예수능력 치유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밤마다 실시하는 "예수능력 영성회복 치유 성회"에 정기님 목사가 강사로 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연말의 분위기를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했다.

정 목사는 호세아서 1:1-11절 본문을 통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선포이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라고 주권하며, 언제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가 중요"함을 피력하며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듯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등불교회가 성경통독을 지역교회에 확대시켜 나가고, 말씀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며 축복을 기원했다."

송미순 목사 하늘샘교회 이전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샘교회 송미순 목사는 지난 11월 24(토)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하늘샘교회 담임 송미순 목사는 1.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2.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3. 하나님을 높이 고 경외하는 교회, 4. 나눔과 배움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5. 세계 곳곳에 성전을 세우는 교회, 6.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 라는 6단계 비전으로 기도의 제목을 정하여 매일 같이 밤, 낮 부르짖는 송미순 목사이다.

이날 담임 송미순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곽영민 목사(지저스타임즈 사무국장)의 기도가 있던 후 유정미 권사의 가창, 하늘샘교회 권사 일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며, 이원근 목사는 마태복음 16:18절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세운교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정기님 목사(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가 권편을, 홍종학 목사(명지대교수)가 축사를, 이원근 목사의 봉헌기도와 축도로 하늘샘교회 이전감사예배를 마쳤다.

한편 하늘샘교회 송미순 목사는 부흥사로서 전국 도시 농어촌 교회와 기도원으로



부터 초정을 받고 집회를 인도하면서 JTNTV방송 및 지저스타임즈 실무이사로서 문서선교와 전파방송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송미순 목사는 성남, 성남동에 교회를 이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힘든 과정을 해결해 주시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셨기

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간증했다. 그는 또 조만간 경기도 화성에 기도원을 세울 예정이라며 뜻을 밝혔다. 여성 목사로서 남성 못지않게 열정 넘치는 사역에 힘쓰는 가운데, 지경을 넓혀가는 속목사의 강한 이미지는 예견되고 있기에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소진우 목사 2011년-2012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1년 1월		4~7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1	갈렐산기도원(임예재 원장)	7~9	갈렐산기도원(임예재 원장)
3~5	동탄사랑의교회(이종훈 목사)	10~12	정기노회
7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2~14	장선교회(이광규 목사)
9~15	신남특별총회(예복교회)	17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3	갈리코년 제직세미나	18~20	내곡교회(함형민 목사)
16~19	성마리아교회(전종희 목사)	25~27	신갈성로교회(이광수 목사)
24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4~7	갈렐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011년 2월		2~4	서울서지방어전도연합교회
31~4	캠모디나 선교대회	9~12	갈렐산기도원(임예재 원장)
6	효창중앙교회(최복대 목사)	15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7~9	술산신교회(김영진 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무열 목사)
13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4~25	남양주시국교연합교회(회장 이영근 목사)
14~17	성신수양관(윤호균 원장)	31~6.3	선교지방원(노희선 교우회원)
20	한강중앙교회(최창규 목사)		
21~23	미수교회(전웅구 목사)		
24	갈렐산기도원(임예재 원장)		
27~3/2	원정소망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3월		2~4	서울서지방어전도연합교회
7~10	성석교회(변재영 목사)	9~12	갈렐산기도원(임예재 원장)
13~16	월계성도교회(김봉하 목사)	15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0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무열 목사)
28~31	은누리교회(조인환 목사)	24~25	남양주시국교연합교회(회장 이영근 목사)
2011년 4월		31~6.3	선교지방원(노희선 교우회원)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갈렐산기도원(임예재 원장)		
경신교회		1~4
장신교회(이광구 목사)		5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7
내곡교회(함형민 목사)		8~11
신갈장로교회(이광수 목사)		15~18
2011년 5월		22~25
서울서지방어전도연합교회		23
갈렐산기도원(임예재 원장)		29~9/1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동대천교회(홍무열 목사)		4
남양주시국교연합교회(회장 이영근 목사)		9
선교지방원(노희선교우회원)		12~15
2011년 6월		18
소망교회(이웅찬 목사)		19~22
선교지 방문		24
갈렐산기도원 (임예재 원장)		26~28
생령나무교회(성낙근 목사)		
심야특별기도대성회		2
2011년 7월		3~5
새연교회(이영근 목사)		10~12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3
신화생여름특별세미나		17~19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3~26
갈렐산기도원 (임예재 원장)		27
유종영목사교회(김경호 목사)		30
31~11/2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시적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정세훈 시집, '부평 4공단 여공' 출판 기념식 열어



정세훈 시인은 서울 인사동 8번길 인사아트프라자골목 인사면옥에서 12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시인 정 세훈은 1955년 충남 홍성에

서 태어나 17살부터 소규모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1989년『노동해방문학』에 시를 발표하면서 시작활동을 했다. 공장에서 얻은 병으로 30여 년간 투병 생활을 해오다가 2011년 초부터 건강이 호전되어 작품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정세훈 시 1989년『노동해방문학』5월호에 발표한 데뷔작『별 따기』와 초기 대표작 「맑은 하늘을 보면」 같은 시를 비롯하여 신작 시집 『부평 4공단 여공』은 마침내 '자기의 시대'가 도래한 시인의 시적 비전을 유감없이 느낄 수 있는

갈수록 노동자의 공핍화 경향을 부채질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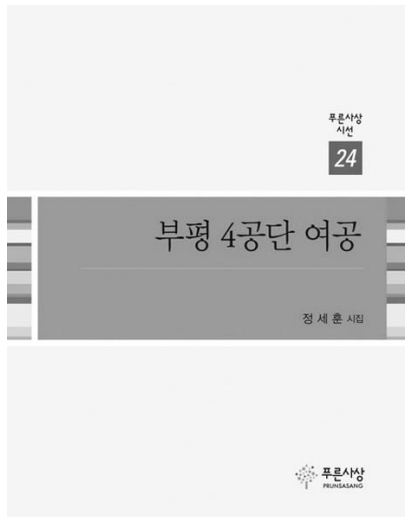
시장 질서에 맞서 무엇이 좋은 노동이며

그런 좋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시집『손 하나로 아름다운 당신』『맑은 하늘을 보면』『저별을 버리지 말아야지』『끝내 술잔을 비우지 못하였습니다』『그 옛날 별들이 생각났다』『나는 죽어 저 하늘에 뿌러지지 말아라』장편 동화집『세상 밖으로 나온 꼬마 송사리 큰 눈이』,포엠 에세이집『소나기를 머금은 풀꽃 향기』가 있다.

이번 신작 시집『부평 4공단 여공』(푸른사상사)이 있다.

리라고 단언할 수 있다. 정세훈이 지향하는 시적 비전은 한 마디로 말해 '좋은 노동'(good work)에 관한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현장 체험에서 발병한 병마(病魔)와 오래도록 싸우며 죽다 살아난 시인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과 사유 과정이 행간마다 묻어나기에 감히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단언해도 좋다. 시인 또한 '시인의 말'에서 "재생된 삶이니 더욱 공공선(公共善)에 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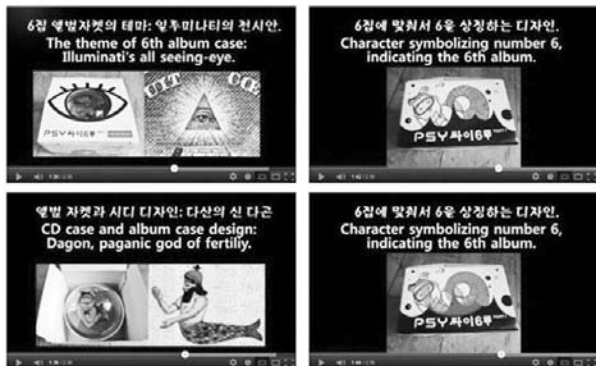


하고 헌신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 않던가.

이러한 시적 인식 때문일까. 정세훈 시에 등장하는 '하늘'의 이미지 또한 저 1980년대 노동 시와는 다른 구름 한 점 없는 말 그대로의 "맑은 하늘"을 "그대"와 더불어 함께 '날아보자는' 적극적인 연대의 감수성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점이 초기 시와는 변화한 정세훈의 시적 전환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자신의 온몸을 동원하여 촉감(觸感)을 활용하려는 민중의 생활주의적 감각과 태도는 여일하다. 어쩌면 정세훈은 그런 시인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가수 싸이, 장막성전 유재열 사위이다

싸이! 요한계시록! 666!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세 단어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지난 7월 15일, 가수 싸이(YG엔터테인먼트 소속)가 낸 <6甲>이라는 6집 앨범이 요한계시록의 '666'을 상징한다나

네티즌들이 제시하는 나름의 근거는 첫째, 앨범 발매일 2012년 7월 15일을 일루미나티(프리카메이슨의 상징) 수비학으로 더하면 2+0+1+2+7+1+5=18=(6*6)=666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 앨범의 포장과 자켓에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자켓 테마에 일루미나티의 '눈'(호

루스의 눈)이 있고, 6집에 맞춰서 6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했으며, 자켓과 CD 디자인에 다산의 신 '다곤'이 등장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홈백쇼'에서 싸이가 청중들에게 한 멘트 중 "진짜 멋진 겁니다. 여기가 낙원이라 생각하는 분은 '소리 질러'"라고 외친 것이 호루스의 눈이 다스리는 세상 낙원을 지칭한 것이라고도 설명한다.

이후 "싸이가 요한계시록의 666"이라는 주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싸이와 지구종말론'까지 합세했다. 16세기 프랑스의 의사이자 점성술사인 노스트라다무스가 싸이의 출현과 지구종말론을 예언했다는 주장이 해외 네티즌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내용인즉 "출주는 말의 숫자의 율이 9개가 되는 때 고요한 아침으로부터 종

말이 올 것"이라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는데 한국이 바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며,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곧 10억의 조회수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10억이면 0이 9개이라는 것이다. 또한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의 유튜브 조회수 10억 회 돌파 예상일은 12월 21일이라고 한다. '2012 지구종말론'과 '싸이 종말론'이 한 데 버무려진 모양새다 (2009년 02월 19일자, "유행하는 '2012년 지구 대재앙' 예언" 기사 참고).

그래서 난데없이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에게도 최근 '싸이의 종교가 뭐냐?'고 묻는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혹은 이단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싸이가 신천지냐?"고도 묻는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도대체 그의 종교는 뭘까? 그가 종교를 갖고 있기는 한 걸까? 기자는 며칠 동안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단, 취재결과 싸이의 장인어른이 장막성전의 교주였던 유재열 씨(64)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가수 싸이의 종교는 알려진 바 없지만, 그가 1960년대 대표적 사이비종교였던 장막성전의 '어린 종' 유재열 교주



의 사위라는 말이다. 장막성전은 오늘날 가장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모태가 되는 사이비종교였다(2008년 4월 7일자, "해 아래 새 것 없다" 신천지의 계보" 기사 참고).

그렇다면 이제 싸이의 종교가 더욱 궁금해진다. 혹은 그의 가족들은 종교가 뭘까? 그러나 사실 그분들의 종교가 현재 무엇이든 별로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유재열 교주는 지난 2002년 월간 <현대종교> 심우영 편집장과의 인터뷰("20년 만에 입을 연 어린 종 유재열, 장막성전의 유재열은 이제 없습니다")를 끝으로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싸이는 종교인이 아니고 연예인이다. 그러나 쓸데없는 논란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싸이측의 입장표명을 기대해 본다.

최근 불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교평화법'이 타 종교인에 대한 선교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처벌까지 예고하고 있어 국가에 의한 종교 탄압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불교의 정치 개입, 기독교 선교 차단하는 전략"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교회연론회가 주관하는 '종교평화법, 과연 필요한가?' 포럼이 7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최근 불교 조계종에서 주장한 '종교평화법'에 대해, 국가가 종교에 개입함으로써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깨고 종교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마련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평화법'은 종교 간의 갈등을 종교적, 신학적 방법으로 아닌 입법을 통한 법과 제도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달리 말하면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 외의 타 종교인에 게 일체의 선교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는 "종교평화법"의 입법 제안은 외형적으로는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 갈등에 따른 불법행위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불교계의 정치권에 대한 개입, 영향력 확대 및 기독교 선교에 대한 차단 전략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연론회 대변인)는 "조계종이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그 법이 자신들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규제할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내용이 입법이 된다면 또 다른 심각한 종교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국 교수(연세대 신과대)는 "국

가의 힘을 빌려 규제할 정도로 한국은 종교 갈등은 심각하지 않다"며 "불교계가 기독교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법으로 전도를 금지하고 종립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입법 통한 국가 개입으로, 종교 탄압 '우려'

특히 '종교평화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권력이 헌법상 자유로운 종교계 선교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종교 탄압, 인권 탄압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일 변호사는 "법의 제정으로 선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명백히 국가 권력이 종교에 대하여 간섭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특정종교를 우대 또는 차별대우 하기 위한 정책수립 내지는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을 통해 이익을 누리는 종교와 피해를 입는 종교가 발생하게 되고 국가가 종교에 개입함으로써 동화적 통합을 저해, 새로운 종교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재국 교수는 "종교평화법"이 만들어질 경우, 이 법에 적용당하는 대상은 개인"이라며 "종단으로 구성돼 있는 불교에 대해 법의 영향력이 미치기는 어렵다. 결국 개 교회 중심인 기독교가 주요 대상이 되며, 힘 없는 개별 교회들과 개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주 목사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의 제정은 개인의 종교 자유를 폐지하고 '종교다원주의'를 강제할 예정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이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탄압국가로 역사적 후퇴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후사 뉴미션



※ 알람: 본지 60호 11면 이재생 목사를 이재생 목사로 수정합니다.

송중섭 박사 원어신약성경 한헬영어 축자 대역판 출간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은 TR축자대역 원어신약성경을 출간하고 시판에 나섰다. 이미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원어신약성경은 3개 국어로 축자 대역하여, 원어의 뜻을 최대한 정확히 번역하고 문장구조상 필요한 곳에서는 13종류의 영어성경과 개역판을(개역개정판) 축자 대역하되 첨부는 원어에 없다는 표시를 하고 그대로 그것을 인용하였다.

1. 킹,제임스역을 검증하였다.

짐승(계4:6)을 생물로 개정하는 것과 같이 잘못 번역된 단어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언어학적으로 지지가 높은 단어들(생물)로 개정하였다.(킹,제임스역의 번역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2. 개역판 및 개역개정판을 검증하였다.

신약 138,020개 단어 중 생략된 16,818(대부분이 접속사와 인칭대명사, 약12%)의 단어들을 보충 번역하였고 오역 의역 및 문장변개도 검증 후 개정하였다. 개역판 및 개역개정판은 원어 신들을 하나님으로(갈4:8) 오역하는 등 매우 심각한 오역이 너무 많다, 이번에 그 부끄러운 오역의 실체가 그대로 들어났다.

3. 비교번역을 하였다.

같은 헬라어 원어가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어서 영어성경 13권 중에서 원어에 가장 적합한 문자적 단어를 비교해서 선택하였고 그 번역문을 각주에서 3,896개의 번역문으로 비교하였다. 예컨대 같은 헬라어가 (1)백성이 (2)군중 (3)무리들이 등으로 번역되었으나 우리는 그곳에서 문자적 번역으로 공인되는 '백성'을 택하고 다른 번역문들은 각주로 제시하여 참고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13권의 영어번역판들 아람어 성경과 대한 성서공회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너희는(ye)
뱀들(ὄφεις-오페이스 serpents)
같이(ὥς-호스 as)
지혜롭고(φρόνιμοι-프로니모이 wise)
또(καί-카이 and)
비둘기들(περιστεραι-페리스테라이 doves)
같이(ὥς-호스 as)
순결(ἀκεραιοι-아케라이오이 harmless)
하라(γίνεσθε-게네스테 be ye)

4. 페쉬타 아람어 신약성경을 참고하였다.

최초에 발굴되어 등장한 166년도로 추산되는 페쉬타 아람어 신약성경을 참조하여서 신약번역에서 역사와 문헌학적으로 지지받는 단어들을 먼저 선택하였다. 각주에서는 아람어에서 실지가는 말둑(마 23:34)으로 약대는 바늘(막10:25)이라는 사실도 제시된 것이 원어신약성경의 특징이라고 본다.

원어신약성경의 특징은

- 누구나 헬라어 원문으로 말씀을 읽고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
- 헬라어 문법을 존중하였다.

1)명사(단수와 복수) 2)명사(동격문제), 3)접속사, 4)접속사 과, 와 5)인칭동사의 주어, 6)첨부, 7)및 첨자와 아래 첨자, 구분하여 알기 쉽게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방법으로 독자들은 좀 더 쉽게 헬라어 언어의 뜻을 영어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영어 번역으로 헬라어의 뜻을 더욱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신 있게 권하는 이 원어신약성경은 말씀을 헬라어 원어중심으로 직접 이해하게 했다. 특히 원어신약성경 등장으로 한국교회는 매우 새로운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편저자 송중섭 박사 소개

대신대학교 졸업,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Maine, 뱅골신학교 수학, 미국 S.C.Erskine(연합정로교회 교단)신학교 졸업(M.Div,D.Min), 총회신학연구원 교수 역임, 한민대학교 신학부 교수 역임, 대한예수교장로회 광명교회 역임, 갈리리 신학연구원 신약학 교수, 신학원어연구소 회장



저서 및 역서

저서 '스미스 리 강해설교'(전 16권) 등 다수, 역서 '풀빛 주석 창세기' '카일탈리쉬 주석' '알포드 원문 주석' (전9권) '벌크퍼 성경해석학' 등 다수

편저 '헬라어 소사전' '성경분해사전' '헬한대조 신약성경' '신약분석성경' '뉴바이블' 'KGE바이블-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다수

주문처 02-903-8360 / H. 010-3286-3316

CTS기독교TV, 새로운 공동대표이사 3인 선임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김기택 감독(기감), 손달익 목사(통합), 정준모 목사(합동)를 임기 1년의 새로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계약 절단과 함께 취임식을 축하했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12월 3일 노량진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기택 감독(기감), 손달익 목사(통합), 정준모 목사(합동)를 임기 1년의 새로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곧바로 '창사 17주년 기념 및 공

동대표이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신임 공동대표이사 3인과 함께 CTS의 선교 사명을 뒀 새겼다.

이 자리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신경하 전 감독회장,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등 교계와 정관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

해, 지난 17년 동안 한국 기독교 대표 방송으로 자리매김한 CTS의 발전을 축하했다.

지난 한해 CTS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예상통합 박위근, 예상합동 이기창 목사는 CTS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

면서,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세계선교의 귀한 사명에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로운 공동대표이사 3인도 "CTS를 밀알과 같이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한국교회의 변함없는 기도와 성원을 요청했다.

또, CTS 감경철 회장은 "17년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음 방송의 지경을 넓혀왔다"며 "순수 복음방송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TS는 1995년 케이블 TV 개국 당시, 기독교 86개 공교단과 43개 주주교단이 참여하여 세운 한국 최초의 기독교 TV 방송으로, 주요 3대 교단장이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다.

한편 CTS기독교TV(감경철 회장)와 명성교회(김삼환 목사)의 주최로 지난 1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설치된 성탄트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예수의 은총을 아름다운 빛으로 표현하였고,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축하했다.

피종진 목사 초청 12월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 3(월)~ 5(수) 서울 새생명교회(정수천 목사) ☎ 010-5522-3996
8(토) 오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영적찬양서울대축제
주최: 한국영성신학교(총재 강태원 목사, 학장 강수미 목사)
10(월)~12(수) 부산 JSTV 위성방송센터(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051)632-4111
13(목)~15(토) 진주기도원(원장 김진홍 목사) ☎(055)748-7209
15(토) 오후 (사)순성세계복음성교회 선교센터 ☎(02)408-2727
17(월)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종인 목사) 장소: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 ☎(02)3411-9191
17(월)~20(목) 화성 명성교회(박명순 목사) ☎(031)968-9191
20(목) 오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실천목회연구원 (원장 피종진 목사) ☎(02)2067-4511
21(금) 오전 서울 큰사랑교회(최영식 목사) ☎(02)403-4821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부흥사회(대표회장 조예환 목사, 김동청 목사)
21(금)~22(토) 부산 JSTV 위성방송센터(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051)632-4111
24(월)~25(화)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 성탄절 행사 ☎(02)3411-9191
26(수)~29(토) 안양 갈매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3
28(금) 오후 글로벌찬양물동신학원(원장 이애라 목사, 운영위원장 피종진 목사) 장소: 서울롯데호텔(소공동) 대강당
31(월) 저녁 남서울중앙교회(원로목사 피종진, 담임 여찬근 목사) 송구영신축복안수대성회 ☎(02)3411-91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CTS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朝鮮日報

감경철 기독교TV 회장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그간 횡령 혐의로 수사해온 감경철 기독교TV(CTS) 회장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감 회장이 CTS 사옥 신축과정 등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제보에 따라 작년 11월 회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해 본 결과 감 회장의 자금 횡령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11월 2일 한경진 기자)

국민일보

CTS 감경철 회장, 회삿돈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

CTS기독교TV는 지난해 12월 횡령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후 검찰 수사를 받아온 CTS 감경철 회장이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고 1일 밝혔다. 감 회장은 'CTS 사옥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00억~500억원을 횡령했다'는 진정과 제보가 접수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노량진 CTS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감 회장을 여러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감 회장 관련 여러 제보와 진정이 있었는데 모두 혐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불기소 처분됐다"면서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수한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계좌추적도 실시했지만 CTS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 회장에 대한 최초의 제보나 진정이 잘못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11월 2일 송세영 지호일 기자)

연합뉴스

횡령 의혹 감경철 기독교TV 회장 무혐의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감경철 기독교TV(CTS) 회장이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감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감 회장이 2002~2004년 서울 노량진 CTS 사옥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물품구입비 등 회사운영비를 과다 계상하는 식으로 400억~500억원의 회삿돈을 착복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를 동원해 CTS의 회계자료를 다 조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자금 횡령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11월 1일 송진원 기자)

문화일보

검찰, CTS기독교TV 회장 무혐의 처분

검찰이 수백 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감경철 기독교TV(CTS)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1일 감 회장이 서울 노량진 CTS 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감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CTS 사옥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400억~50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았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제보와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CTS를 비롯해 감 회장 및 가족 명의로 된 관련회사 17곳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감 회장의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를 받은 CTS 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감 회장의 자금 횡령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11월 1일 현일훈 기자)

CTS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는 믿음으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CTS의 방송사역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라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목양과 선교에 전념**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후원금 감소와 선교방송 사역 확장에 어려움은 많았지만, **CTS는 하나님의 영광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CTS가 영상선교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단이사 (가나다순)

강구원 경원수 고수철 고영기 김병삼 김영진 김영훈 김요셉 남승찬 남태섭 민경자 박광식 박노숙 박래창 박영배 박위근 신수희 안종원 오영택 오정현 우순태 우원근 유자현 윤광식 윤희구 이건호

CTS기독교TV

이규학 이기창 이영수 임영식 전용재 전충현 전희인 조성기 주남석 최병철 최희범 한정호 홍광 홍재철 황규철 감경철 김해철(감사) CTS 임직원 일동

한국교계 표준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신년하례 공고

축 성탄과 새해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희망 2013년 대망의 새해 화합과 단결로 새 출발하는 신년하례에 웨신총회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총회장 이재갑 목사 외 임원 일동 배상



2012신년하례회

- 일 시 : 2013년 1월 8일(화) 오전 11시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6 - 5호
- 장 소 : 로즈마리웨딩뷔페
- 전 철 : 5호선 3번 출구
- ☎ 02)2671-3600



총회장
이재갑 목사
빛과소금교회



부총회장
장창운 목사
열린찬양교회



부총회장
허성인 목사
신성교회



서기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부서기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회의록서기
김안식 목사
절만현물가



부회의록서기
유운주 목사
지구촌교회



회계
이영풍 목사
빛 교회



부회계
양덕심 목사
계산사랑교회



감사
이규 목사
동산교회



감사
이이중 목사
제일교회



총무
신연창 목사
성암교회



간사
구정숙 집사



웨신총회

총무: 신연창 목사 010-8602-3009
서기: 조강수 목사 010-3874-0695

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화: 02)835-2066-7 팩스 02)835-2608

홈페이지 <http://ws21.onmam.com>
E-mail: sec21ch@hanmail.net